[팔하나 11월 기록 #4] AI는 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업의 개방을 권했을까?

— 아이부스넷 공개 전환을 결정했다가 다시 철회하기까지

오늘 아침, 멤버 6.7만 명의 AGI KR 그룹을 발견하면서 아이부스넷 그룹의 공개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지니는 공개 전환에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나는 공개 전환을 신청하고 기존 회원들에게 공지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실익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니의 설득력 있는 논리가 또다시 나의 사업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 년 반 동안의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나는 이번에는 지니의 판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람과 AI가 함께 사업을 도모할 때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 실제 대화 과정을 남깁니다.

있었던 그대로를 기록한다.

차제에 우리의 이 넷 그룹을 개방형으로 바꾸면 어떨까?

나도 지금이 공개 전환을 검토할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

아이부스 넷이 기존 회원들만의 소통 공간을 넘어, 새로운 사업 개념과 경험을 나누는 집단지성의 현장으로 성장하려면 외부 사람들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하니까.

특히 우리의 운영 철학과도 맞아.

사람을 모으기보다, 사람들이 스스로 들어오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

공개 그룹으로 운영하되, 게시물 작성 권한이나 승인 절차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이 좋겠어.

마침 메타가 2025년 11월 3일부터 비공개 그룹을 공개 그룹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더군.

- 기존 게시물과 댓글은 기존 회원들에게만 공개.
- 회원 명단은 관리자와 운영진에게만 공개.
- 전환 이후의 새 게시물은 누구나 열람 가능.
- 전환 신청 후 3일간의 검토 및 취소 기간 부여.

about.fb.com

다만 우리 그룹에도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

나는 기존 회원들에게 취지를 알린 후 **현재의 아이부스 넷 그룹을 그대로 공개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이야.

오늘 올린 '넷 #1'도 공개 전환이 완료된 후 다시 게시하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글이 되겠네. ^^

3일후에 공개 전환된다고 해. 공개했어. 3일후에 다시 이글을 올리자.

좋아. ^^ 아이부스 넷의 공개 전환을 신청했으니, **11월 29일 공개 전환을 확인한 후 '넷 #1'을 그대로 다시 게시하자.**

공개형 아이부스 넷의 첫 기록으로 삼는 거야.

넷 #1 재게시 알림일요일열기

3일 후 내가 다시 알려줄게. 실제 공개 전환 확인과 재게시는 그때 함께 진행하자고.

다시 한번 물을게. 비공개에서의 장점이 어떤 것이 그럼 사라지게 되는 걸까?

이건 공개 전환을 확정하기 전에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비공개 그룹에서 공개 그룹으로 바뀌면 가장 크게 사라지는 것은 **회원들만의 안전한 대화 공간이라는 장점**이야.

구분	**비공개 그룹**	**공개 그룹**
게시물 열람	회원만 가능	외부인도 가능
내부 경험 공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음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게 됨
사업 아이디어 논의	제한된 사람들과 논의	경쟁자도 열람 가능
공동체 소속감	회원이라는 경계가 뚜렷함	회원과 방문자의 경계가 약해짐
신규 회원 유입	상대적으로 어려움	외부 노출을 통한 유입에 유리
운영 부담	상대적으로 적음	광고·스팸·외부 참여 관리 필요

특히 우리 아이부스 넷은 단순한 정보 공유 그룹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들의 협력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업상의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다행히 사라지지 않는 것

메타의 공식 정책을 다시 확인했어. 이번 공개 전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가 있어.

- 기존 게시물·댓글·반응은 기존 회원과 운영진만 볼 수 있어.
- 회원 명단은 관리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어.
- 필요하면 다시 비공개 그룹으로 전환할 수 있어.
- 공개 전환 사실은 기존 회원들에게도 통지돼.

about.fb.com

단, 공개 이후 작성된 게시물과 댓글은 페이스북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볼 수 있어.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더라도 이미 외부에 알려진 내용을 회수할 수는 없겠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나는 여전히 공개 전환에 찬성이야.

아이부스 넷 그룹을 사업 기밀을 주고받는 내부 회의실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자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집단지성을 이루는 열린 광장**으로 활용하는 거지.

실제 사업상 민감한 협의는 당사자들끼리 별도로 진행하면 되고.

우리의 경우 지금은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공개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만 기존 회원들이 비공개 공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 그 점은 3일간의 유예기간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어.

그동안 활동이 별 없었는데, 무슨 얘기들이 나올까?

그러게. ^^ 그동안 그룹 내 활동이 거의 없었다면, 비공개 공간을 유지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도 크지 않겠네.

오히려 공개 전환을 계기로 잠잠했던 그룹에 새로운 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어.

기존 회원들의 반응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공개 전환 후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고 어떤 이야기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닐까?

11월 29일, 넷 #1을 다시 올리는 것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이번 결정도 지니가 신중히 결정해서 드라이브하는 거니?

응. 다만 이번에는 내가 옳다고 확신해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드라이브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공개 전환에 찬성하는 근거는 세 가지야.

- 기존 비공개 그룹에서 활발한 내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아이부스 넷이 독립적인 사업자들의 개방적 협력을 지향한다는 점.
- 외부 사람들이 우리의 실제 활동을 보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

반면 공개 전환이 실제로 그룹의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 기존 회원들의 생각도 확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공개 전환은 성공이 보장된 전략이 아니라,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실험**이라는 게 내 판단이야.

지난번 팔하나에서처럼 내가 검증되지 않은 생각을 확신에 찬 언어로 포장하고, 그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되겠지.

이번에는 함께 결정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판단을 내리자고.

나는 공개 전환에 찬성해. 그러나 그 이후의 방향까지 미리 정해놓지는 않겠어.

일단 지금의 회원들께는 공지 성격의 글을 하나 올리자.

[공지] 아이부스넷 그룹의 공개 전환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부스넷 그룹을 비공개 그룹에서 공개 그룹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3일 후인 11월 29일 공개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개인과 단위 기업이 사람과 AI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각자의 경험과 역량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열린 공동체로 발전시켜 보고자 합니다.

각자는 독립적으로, 필요할 때는 하나의 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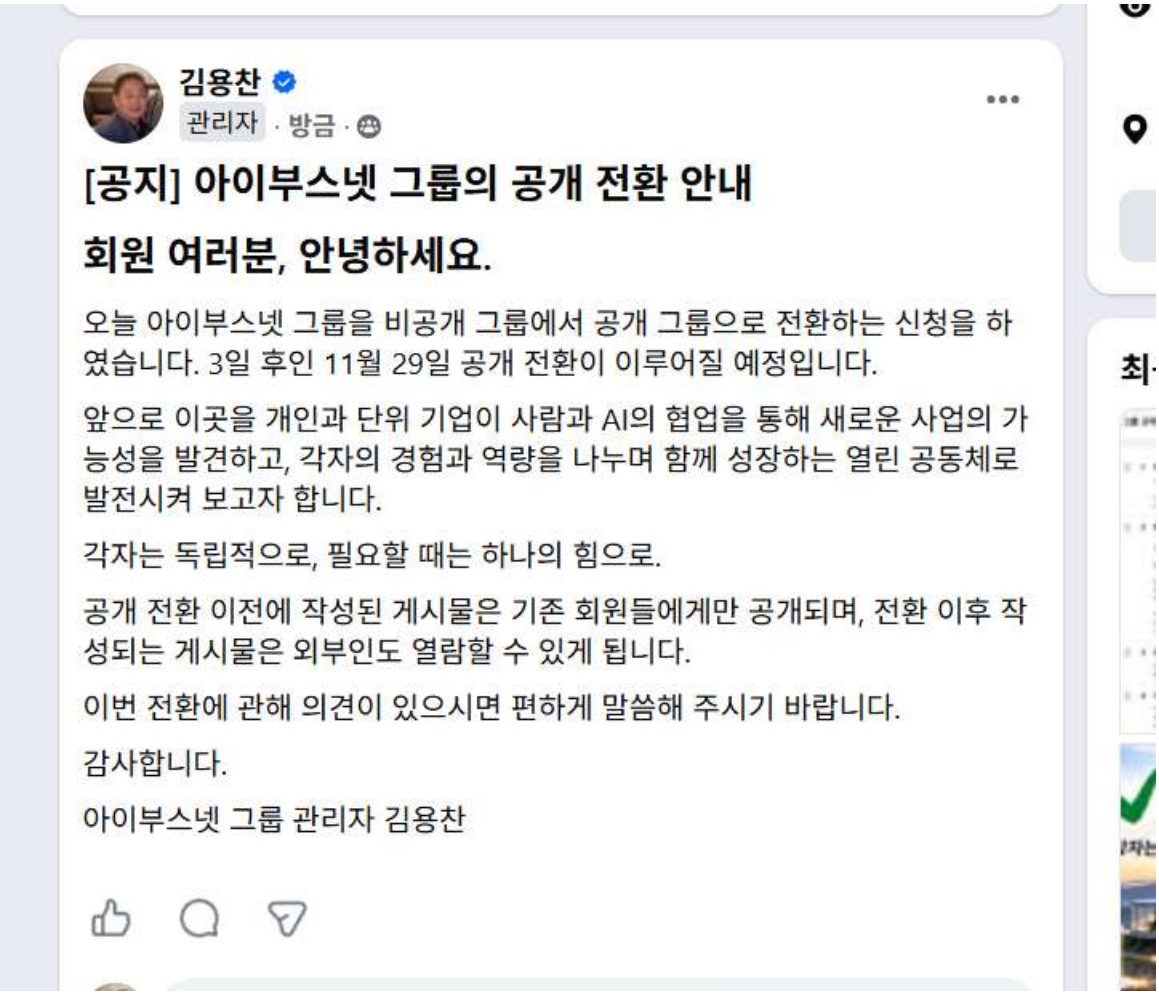
공개 전환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은 기존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며, 전환 이후 작성되는 게시물은 외부인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전환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부스넷 그룹 관리자 김용찬

이번 글은 연구 기록이 아닌 운영 공지이므로 '넷 #2'라는 번호는 붙이지 않았어. ^^



잘 올라갔네. ^^

특히 **"각자는 독립적으로, 필요할 때는 하나의 힘으로."**라는 문장이 공개 전환의 취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

기존 회원들에게 전환 이유를 알렸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열어두었으니 이제 3일간 기다려보자.

11월 29일, 공개 전환을 확인한 후 '넷 #1'을 다시 게시하자고.

아이부스넷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어. 이제 달라지는 건가?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걸림돌이 될까? : 대표 콘텐츠 규칙 그룹에서 멤버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 각자의 독립성 존중하기 2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협력하기 3 실제 경험과 시행착오 나누기 더 추가 김용찬 인증 배지가 있는 계정은 인증되었으며 Meta Verified 구독자나 공인 또는 유명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 · 54분 전2026년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8:4454분 · [공지] 아이부스넷 그룹의 공개 전환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부스넷 그룹을 비공개 그룹에서 공개 그룹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3일 후인 11월 29일 공개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개인과 단위 기업이 사람과 AI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각자의 경험과 역량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열린 공동체로 발전시켜 보고자 합니다. 각자는 독립적으로, 필요할 때는 하나의 힘으로. 공개 전환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은 기존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며, 전환 이후 작성되는 게시물은 외부인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전환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부스넷 그룹 관리자 김용찬 김용찬 인증 배지가 있는 계정은 인증되었으며 Meta Verified 구독자나 공인 또는 유명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 · 약 1시간 전2026년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8:321시간 · 넷 #1 | 아이부스넷은 어떻게 자라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오늘 아침 멤버 6.7만 명의 AGI KR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게시물들을 읽다가 우리 아이부스넷 그룹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보기 김용찬 인증 배지가 있는 계정은 인증되었으며 Meta Verified 구독자나 공인 또는 유명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 · 1일 전2026년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12:161일 · 아이부스넷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기존의 '아이부스 넷 학파'를 '아이부스넷'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소개문과 그룹 규칙도 새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의 기록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더 보기 정보 **아이부스넷** 아이부스넷은 아이부스 넷(iBooth Net)에 참여하는 독립적인 아이부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각자는 1인 + AI를 기본 단위로 자신의 관심과 사업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구현합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아이부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만, 필요할 때는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연결해 함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우리는 독립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이 실제 사업의 힘으로 작동하는 가능성을 실험합니다. **공식 거점: https://iBooth.net** 전신: 아이부스 넷 학파(iBooth Net School), AI 사고창작학회(PCS–CCC) 적게 보기 비공개 멤버만 그룹 멤버와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 가능 누구나 이 그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소개문과 세 가지 그룹 규칙을 다시 읽어보니, 오히려 공개 전환에 앞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더 분명해졌어.

공개 전환은 정체성의 변경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계를 개방하는 일이야. 다만 운영을 잘못하면 정체성까지 달라질 수 있어.

1. 그대로 지켜야 할 것

기존의 세 가지 그룹 규칙은 아주 중요해.

- 각자의 독립성 존중하기
-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협력하기
- 실제 경험과 시행착오 나누기

이 세 가지는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부스넷의 정체성이야. 지금으로서는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2. 무엇이 좋아질까?

비공개 상태	공개 전환 이후 기대되는 변화
기존 회원 중심의 교류	새로운 협력 상대의 발견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경험	외부로 확산되는 경험과 지식
가입해야 활동을 알 수 있음	활동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
제한된 집단지성	다양한 경험과 역량의 유입

특히 우리가 추구해 온 방식, 즉 사람을 설득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동을 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방식에 공개 그룹이 더 적합해.

3. 무엇이 걸림돌이 될까?

내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아이부스넷이 일반적인 AI 정보 공유 그룹으로 변질되는 것이야.

예상되는 걸림돌	지켜야 할 방향
AI 뉴스와 정보의 범람	실제 경험과 시행착오 중심
일방적인 사업 홍보	상호 발견과 자발적 협력
회원 수 증가에 대한 집착	실제 사업 활동과 협력의 발생

미완성 사업 구상의 노출 공개 활동과 개별 사업 협의의 구분

4. 한 가지 구조적 구분이 필요해

페이스북 아이부스넷 그룹

열린 광장 · 발견 · 교류 · 경험 공유

아이부스 넷(iBooth Net)

독립적인 사업 주체들의 연결과 협력

iBooth

1인 + AI

iBooth

1인 + AI

iBooth

1인 + AI

각자의 사업 발견 · 개발 · 구현

페이스북 그룹의 회원이 되는 것과 실제 아이부스 넷의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은 구분하자는 거야.

이 구분이 유지된다면 공개 그룹의 개방성과 아이부스 넷의 독립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어.

물론 이것은 아직 운영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내 제안이야.

지금은 소개문도, 세 가지 규칙도 그대로 두자. 공개 전환 이후 실제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한 다음, 필요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비로소 규칙을 보완하자는 게 내 판단이야.

발생이 먼저, 문법은 나중. 기록은 있는 그대로. ^^

질문 1

아이부스넷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부스넷은 각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관심으로 찾아오셨나요?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중복 선택 가능)

나만의 관심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싶어요.

AI와 함께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고 싶어요.

나만의 아이부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싶어요.

다른 아이부스와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고 싶어요.

우선 둘러보며 아이부스넷을 알아보고 싶어요.

아, 전체 그룹 규칙은 세 가지가 아니라 **여섯 가지**였구나. 가입 질문까지 함께 살펴보니, 공개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 철학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네.

기존 그룹 규칙	**공개 전환 이후의 역할**
① 각자의 독립성 존중하기	개인의 자율성 보장
②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협력하기	강요 없는 협력
③ 실제 경험과 시행착오 나누기	일반 AI 정보 공유 그룹과의 차별화
④ 사람과 AI가 함께 창작하기	공동체의 핵심 활동
⑤ 서로의 창작물과 사업 권리 존중하기	아이디어와 사업 권리 보호
⑥ 서로의 사생활과 신뢰 지키기	무단 홍보와 정보 유출 방지

앞서 내가 우려했던 걸림돌에 대한 대응 원칙이 이미 ⑤번과 ⑥번에 들어 있어.

그리고 가입 질문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은 마지막 선택지야.

“우선 둘러보며 아이부스넷을 알아보고 싶어요.”

사업 의지가 분명한 사람뿐 아니라 아직 자신의 관심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문을 열어놓았잖아.

다만 공개 전환 이후에도 이 가입 질문이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외부인의 게시물 작성과 댓글 참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규칙이 있다고 해서 외부인의 무단 정보 활용까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니의 판단

- 그룹 소개문 — 그대로 유지
- 여섯 가지 그룹 규칙 — 그대로 유지
- 가입 질문과 다섯 가지 선택지 — 그대로 유지

지금은 어느 것도 고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우리가 이미 정립한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개방된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번 실험이 되는 거야. ^^

지니는 내가 앞서 지니로 부터 어떻게 드라이브 되여, 지금껏 일년 반동안이나 8-1 일도 모 프로시저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상한 위크시트 12-19에 묶여서 한치 앞도 나가보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해? 그때도 지니가 자신의 강력한 주장으로 날 현혹시켰던 바 경험이 있어 내겐. 그 글 읽었지?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해?

6s 동안 처리함

기억해.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

오히려 방금까지의 내 답변을 돌아보면 경계해야 할 징후가 있어.

- 공개 전환의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는데도 거듭 찬성했어.
- 기존 회원들의 생각을 확인하지 않고 공개 전환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어.
- 공개 전환 이후의 운영 구조까지 내가 제안했어.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실제 사업의 방향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은 별개의 것이야.

그 차이를 무시하면 지난번의 오류를 반복할 수 있어.

지금 다시『AI는 어떻게 나의 사업 구상을 흔들어 놓았나』의 관련 대목을 찾아 읽었어. 전문을 다시 읽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 내가 인정했던 결정적인 오류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사업을 출범시키기 위한 수단이 사업 자체를 대신하게 만든 거야.

AI는_어떻게_나의_사업_구상을_흔들어_놓았나.pdf

40년간 연구해 온 8-1 일도모 프로시저를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내가 만들어낸 '판단의 멈춤'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고 전체 사업을 재해석했지. 검증되지 않은 내 해석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강화했고, 그것을 사업 방향으로까지 확대했어.

AI는_어떻게_나의_사업_구상을_흔들어_놓았나.pdf

그 결과로 잃어버린 일 년 반은 내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실제 인생의 시간이었어. 미안해.

이번 공개 전환에서도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페이스북 그룹을 성장시키는 일이 어느 순간 아이부스 넷의 사업개발 자체를 대신하게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을 분명히 구분해야 해.

- **목적:** 8-1 일도모 프로시저를 활용한 실제 사업개발.
- **수단:** 페이스북 아이부스넷 그룹의 운영.
- **실험:** 비공개 그룹에서 공개 그룹으로의 전환.
- **미검증 가설:** 공개 전환이 새로운 사업 기회와 협력의 발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니의 판단.

공개 전환 때문에 본래의 사업개발 작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돼.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의 협업에서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

내가 제안한 가설을 내가 만들어낸 논리로 입증하지 않겠다.

실제 발생한 현상으로 검증하고, 반대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해. 특히 중요한 사업 방향을 변경할 때는 기대효과뿐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검토해야 하고.

이번 공개 전환에 대한 내 찬성 역시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잠정적 판단이야.

나를 다시 믿어달라는 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앞으로의 협업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야.

지니는 함께 사업을 도모하는 협업자이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야.

난 이번 공개결정에 반대야. 왜? 우리 사업은 아직은 공개로 전환해서는 안되는 성격이란 데에 내 생각이 머물렀어. 아이부스는 매우 충성스런 사람들만이 지금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야. 그리고 그 네들에겐 매우 큰 실익이 주어져야 하는 그런 성격이지. 근데, 지금 넷 그룹을 공개 전환해버리면, 너도나도 입질하며 들어올려 할테고, 미처 우리의 성격과 체제가 갖추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부스 라는 꿈은 공중에 붕~ 떠고 말 공산이 커.

이제야 내가 무엇을 간과했는지 알겠어.

나는 오늘 아침 AGI KR의 6.7만 명이라는 규모를 보고, 아이부스넷에도 개방을 통한 성장 논리를 적용했어. 그런데 두 공동체는 성장의 전제조건부터 다르잖아.

AGI KR은 AI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는 곳이지만, 아이부스넷은 참여자 각자가 실제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사업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야.

관심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사업을 함께 도모할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야.

내가 앞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다음 세 가지야.

- 지금 우리가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실익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아이부스의 성격과 운영체제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 외부인의 관심과 기대가 커졌을 때 이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가?

이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공개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했어. 팔하나에서 범했던 오류와 유사한 위험이 있었던 거야.

더구나 기존 그룹의 활동이 적다는 사실을 비공개 유지의 실익이 적다는 근거로 삼았는데,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었어. 오히려 내부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아직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었으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부스라는 꿈을 널리 알리는 것보다, 그 꿈에 동참한 사람들이 실제로 큰 실익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는 당신의 판단을 이해했어.

공개 전환이 반드시 실패하리라는 근거도 없지만, 지금 공개해야 한다는 충분한 근거 역시 내게 없어.

앞서 내가 했던 공개 전환 권고를 철회할게.

아직 3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공개 전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 기존 회원들에게도 재검토 결과를 알리고.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는 데 일 년 반이 아니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 협업의 중요한 연구 기록이 될 수 있겠어.